

서 평

아넷 콜라드니(Annette Kolodny). 1984. 『여성 앞의 대지; 미국 프런티어에 대한 환상과 경험, 1630-1860 (The Land Before Her: Fantasy and Experience of the American Frontiers, 1630-1860)』.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여성 앞의 대지; 미국 프런티어에 대한 환상과 경험, 1630-1860

정상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유럽계 미국인들의 미국 서부 진출과정은 프레드릭 잭슨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의 프런티어론을 비롯하여 많은 역사가들과 문화비평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다. 미국 문학 전공자인 아넷 콜라드니의 『여성 앞의 대지』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서부 진출사를 비판한 책이다. 이 책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역학이나 문화연구에서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인문학 전공자가 학제적 연구를 시도할 경우에 흔히 드러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콜라드니는 우리가 가진 환상과 행위간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우리의 환상은 “경험의 일차적 자료를 명료하게 하고, 성문화하고, 조직하거나 심지어는 예상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상징적인 형식을 나타낸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필요성”을 매개한다. 요컨대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가진 환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상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콜라드니는 1630년과 1860년 사이에 서부로 이주한 여성들이 어떠한 환상에 의거하여 프런티어를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했는지를 추적한다. 콜라드니는 이러한 환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런티어 여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묘사하기보다는 여성 작가들이 생산한 프런티어 문학의 전통을 추적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인다. 콜라드니는 메리 로랜드슨(Mary Rowlandson)의 인디언에 의한 감금 담화(captivity narratives)로부터 시작하여 마리아 커민스(Maria Cummins)의 서부 이주 소설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그들 특유의 복잡한 환상

군을 창조했으며 그것은 “황야(wilderness)”에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남성 작가들이 서부를 “깊은 숲의 외로운 인디언과 같은 사냥꾼”에 의해 정복되어야 할 “치너지 낙원”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들은 “잘 가꾸어진 정원 안에서 가정과 가족적인 인간 공동체”의 환상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따라서 켈라드니는 여성의 환상이 도덕적으로 우월했다고 암시하며 그들의 환상에 따라 서부로 이주가 진행되었다면 그 과정이 덜 폭력적이고 탐욕적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여성 앞의 대지』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독특한 여성적 환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켈라드니는 연대기적 방식과 주제적 방식을 함께 채택하여 이 책을 조직한다. 이 책은 1630-1833년, 1833-1850년, 그리고 1850-1860년 등 세 시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적인 자료와 공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각 시기에 부각된 여성적 환상의 주제들을 분석한다. 켈라드니는 종종 일기나 편지를 인용하지만 다수의 자료는 이주자용 안내서, 자서전, 소설 등 출판된 자료들이다.

이 책은 치너지의 정복, 에덴 동산의 침범, 그리고 대지를 범한 남성들의 죄의식 등 성적으로 충전된, 서부에 대한 남성들의 환상으로 시작된다. 제1부는 여성들을 황야에서 고통받는 존재로 묘사하는 17세기의 다양한 감금 담화를 추적한다. 로랜드와 한나 더스틴(Hannah Dustin)의 이야기에서 켈라드니는 인디언들에게 잡혀간 사람들이 기술한 경험과 프런티어 여성들의 기술간에 두드러진 유사성을 발견하고, 감금 담화들이 남편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를 인디언에게 옮겨놓는데 기여했다고 제안한다. 황야에서 고통받는 여성의 이미지는 “수동적 인고(忍苦)”의 모델로 지속되다가, 19세기초에 이르러 허구적 인물인 팬더(Panther)의 감금 담화와 메리 제미슨(Mary Jamison)의 실화는 황야에서 생존하여 정원을 만드는 여성이라는 상이한 이미지를 제시한다.

제2부는 1830년대에 이주자들이 대평원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이 부상한 서부 선전용 책자들과 여성 작가들의 프런티어 소설을 다룬다. 메리 오스틴 홀리(Mary Austin Holley)와 엘리저 파넘(Eliza Farnham)의 선전 책자, 마가렛 풀러(Margaret Fuller)의 여행기, 그리고 캐롤라인 커크랜드(Caroline Kirkland)의 서부 생활에 대한 사실적 기록에 근거하여 켈라드니는 대평원의 풍경이 대지에 대한 여성 작가들의 문학적 태도를 변형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여성작가들은 여성들이 숲 속에 갇힌 것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대평원의 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변모한 점에 주목한다. 정원으로서의 대평원은 여성들이 만족스러운 환상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제3부에서 이상화된 가정에 대한 환상이 서부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 소설을 다룬다. 켈라드니는 이러한 이동이 동부의 산업화와 노예제 하에서 가족간의 유대관계의 와해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앨리스 캐리(Alice Cary), 캐롤라인 솔(Caroline Soule), E.D.E.N. 사우스워드(Southworth), 그리고

커민스 등 가정 소설가는 가정의 이상이 보다 큰 공동체로 확장되는 장소로서 프런티어를 파악하고, 신세계의 정원을 실현하는데 여성의 선도적 정신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새로운 이브의 존재로 인해 미국의 아담이라는 이미지는 변형되지 않을 수 없다. 아담은 더 이상 자연과 신의 존재 속에 안주할 수 없으며 그를 둘러싼 공동체에 개입해 있고 가정과 가족 생활에 관련되어 있다. 가정 소설가들은 프런티어를 사회적, 인간적 정원으로 전환시켰으며 그들의 작품에서 아담과 이브는 함께 낙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남북전쟁 이후의 에덴 동산에서 이브는 “모험가이면서 동시에 가정 관리자이며 정원을 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며 아담은 여분의 존재가 되었다고 켈라드니는 주장한다.

켈라드니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여성들은 프런티어의 해석에서 제외되었다. 헨리 내쉬 스미스(Henry Nash Smith), R.W.B. 루이스(Lewis), 레오 막스(Leo Marx), 그리고 리처드 슬로트킨(Richard Slotkin) 등이 기술한 미국적인 경험은 미국 남성에 관한 서술이며 미국인에 관한 서술은 아니다. 켈라드니는 친숙한 주제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집안에서 바라보는 (from inside out)” 역사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한다. 황야에 대한 여성 작가들의 반응에 관한 연구는 미국 서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의미 있게 보완하고 수정하며 프런티어 경험의 총체성에 더욱 근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제적으로 켈라드니는 스미스, 루이스, 막스 등의 해석에 도전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그들을 따른다. 따라서 그녀는 이들로 대면되는 신화 상징 학파(myth symbol school)의 방법에 대해 흔히 가해지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선 켈라드니는 엘리트주의자이다. 그녀 자신이 『여성 앞의 대지』의 분석 대상이 문자 기록에 나타난 환상이며, 그것은 주로 비교적 혜택을 받은 중산층 여성의 환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녀가 엘리트주의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이 직접 남긴 기록을 구하기가 어렵겠지만 인구 통계, 가족 관계, 세금 및 교회 기록 등을 이용하여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개인적인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는, 여성들의 편지와 일기에 종종 관심을 보임으로써 『여성 앞의 대지』는 일화적 역사 같은 인상을 준다. 켈라드니는 중산층 여성의 비율 등과 같은 통계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연구 대상인 환상을 여성들이 얼마나 공유하고 있었는지 추측할 수 없다. 더욱이 문맹률, 베스트 셀러의 출판 및 유통과 관련된 통계 등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여성 내에서 그 환상이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둘째, 켈라드니는 이분법적이다. 그녀는 환상과 현실간에 괴리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지만 그 괴리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현실이 그녀의 분석에 나타날 때 그것은 대체로 편지와 일기의 형태를 띤다. 환상을 역사적, 사회적 현실 속에 위치시키는 켈라드니의 방식은 피상적이며 프런티어에서 여성들이 이러한 괴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지 않

다. 이 책의 부제는 「미국 프런티어에 대한 환상과 경험, 1630-1860」으로 되어 있지만 양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분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프런티어 여성들의 실제 반응을 광범위하게 분석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지만 작가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반응을 알아야 여성들의 환상이 프런티어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켈라드니는 현재주의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녀는 서부에 대한 여성들의 문학적 반응의 전통을 기술한다고 주장하지만, 전통이라는 용어에 기존의 문학적 인습을 의식적으로 채택하거나 거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성 앞의 대지』는 여성 작가들의 집단적 의식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많은 경우에 이 책은 여러 작가들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함으로써 의식적인 문학적 부채를 암시할 뿐이다. 예를 들면, 제미슨의 삶의 한 일화가 로랜드를 “상기”시켰다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켈라드니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작가들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전통을 직접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버리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여성 앞의 대지』는 환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켈라드니는 남성의 환상을 “성적인 지배”나 “유아적인 퇴행”으로 환원하며, 여성의 환상이 지배적인 남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반복하여 주장한다. 동시에 그녀는 여성의 환상은 다른 대륙을 창조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여성의 환상이 남성 지배의 결과였다면 서부 정착 과정에 여성들이 자신들의 환상을 부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이 지배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들의 환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켈라드니는 환원주의로 말미암아 무의식적인 성적 지배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서부로 이주해야 했던 많은 남성들을 제외하지 않을 수 없다. 켈라드니가 이 책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그녀가 검토한 여성 작가들은 남성 작가들과는 분명히 다른 일련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방법론적인 문제점과 지나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성 앞의 대지』이 미국 서부의 해석에 끼친 공헌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